

**(주)휘보, 학회와 공동연구과제 수행 예정**

(주)휘보 (대표이사 조재구)와 협회 기술고문이며 (사)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회장인 서울대 지철근 박사팀과 함께 '기능성 도료의 원적외선 특성평가 연구'에 대한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협회 최태섭 전무이사 및 이정우 과장이 개발에 참여할 예정이다.

생활환경이 향상되고 새로운 문화를 영위하기 위한 신소재가 많이 등장하면서 각종 건축내장재 및 포장재료가 고급화, 차별화되는 추세이고 이러한 경향은 인간의 자연회귀본능을 자극하는 천연소재나 이와 유사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가 증가하면서 건축자재의 고급화 및 고기능성의 건축자재와 포장산업으로서의 신제품 개발이 눈에 띄게 증가함에 따라 기능성도료의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건축내장재 및 포장재료에 고기능성 도료의 개발을 통하여 이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한 기능성 건축내장재 및 포장재료 개발 및 물리화학적 특성, 원적외선특성 평가와 생체효능시험을 통하여 기능성 효과에 대한 특성 평가하여 이를 활용한 건축내장재와 포장재료의 개발 및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제품과 달리 환경에 문제를 주지 않으며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도료를 개발하며, 도료의 제반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내장재 및 포장재료로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협회 이모저모**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이익극대화와 원적외선 산업과 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심포지엄과 세미나 등의 학술행사 개최를 비롯하여 원적외선 특별강연 및 자료집, 보고서 발간 등으로 신기술과 정보제공에 앞장서고 있고 원적외선에 대한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체계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 협회에서는 회원사와 각종 방송매체 및 회원사의 전시회에 협력하여 원적외선 응용 우수제품에 대한 마케팅 홍보효과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협회에서는 (주)세일어퍼럴의 원적외선의 류의 제품홍보 및 회사소개용등 방송제작을 위해 원적외선방사량 측정과 적외선열화상측정과정을 생동감있게 실측해 주고 지난 4월에는 (주)신광기업의 원적외선 장미램프의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02 중국 국제 조명 전기 박람회」에 적외선열화상장치를 대여하여 전시회장에서 바로 측정을 하여 전시회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원적외선을 이해시켜주는 등 회원사의 이익창출 및 해외시장의 진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일본원적외선응용연구회 江川芳信 전무이사는 지난 4월에는 '제8회 한일원적외선 심포지엄'과 '원적외선 응용제품전시회' 세부일정 점검 및 협의하였고, 5월에는 평가 및 보완사항 등을 협의차 2차례 협회를 방문하였다. 또한 내년에 있을 '제9회 한일원적외선 심포지엄'에 대한 협의를 하며, 한일원적외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 협회는 회원사 연회비를 대폭 인하하였다. 3년차 회원사의 연회비는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년차는 20만원으로 대폭 낮추었다. 또한, 시험측정비 역시 신규회원사인 경우 20%, 2년차와 3년차인 경우는 3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협회는 그간 회원사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속에서 재정적인 안정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회원사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가입의 문턱을 낮추어 다양한 업종과 업체의 가입환경을 조성하고 업체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며, 협회는 원적외선 산업계의 구심체가 되어 더욱 위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권익보호와 이익창출에 더욱더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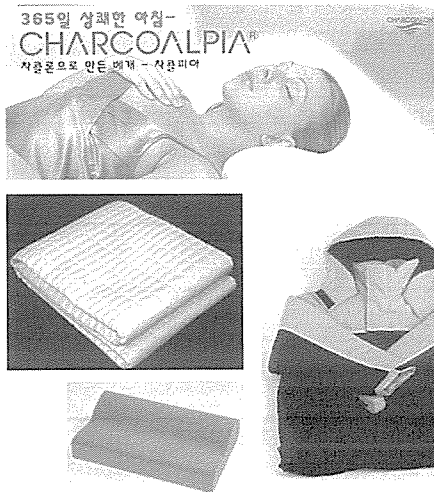
### 참숯을 사용한 원적외선 침구류-차콜피아

(주)제이티엘(대표 장재석)은 참숯을 사용하여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침구류를 출시하였다고 한다.

제이티엘 측은 참나무를 1000~1300°C에서 숯을 만들어 밀가루보다 10배정도 미세하게 분쇄한 후 마스터 칩으로 가공 용융 방사하여 뽑은 신소재 섬유인 차콜론(Charcoalon)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이 제품은 숯의 고유한 기능을 그대로 간직하여 원적외선 방사, 유해균 억제, 냄새 제거, 흡착력, 부패방지, 정화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습기도 차지 않고 보온성이 뛰어나다고 밝혔다. 현재 차콜론은 국내특허 및 세계 80여 개국에 국제 특허 획득한 상태이며, 숯 가공기술로 우레탄의 우수한 물성을 함유한 섬유로 숯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유지한 제품이라고 한다.

차콜론을 사용하여 제조·판매하는 침구류는 원적외선 방사로 뇌파를 안정시켜 주고 노폐물의 방출을 빠르게 하여 혈액을 맑게 하며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한다. 또한 냄새, 습기, 세균등의 번식을 방지하며, 인체공학적인 제품으로 365일 편하고 상쾌한 아침을 제공한다고 업체 측은 말한다.

연락처 : 02) 3775-2058/9



### 친환경 황토벽돌 선보여

공간세라믹(대표 조백일) 이 점토와 고령토, 황토 등 친환경 자연소재를 원료로 한 환경친화적인 벽돌을 내놓았다.

‘그냥 일반 벽돌이 아닙니다. 친환경 인텔리전트 벽돌입니다.’

공간세라믹의 벽돌은 황토 등 100%자연 원료를 이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황토는 일정하게 쾌적한 습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 황토 벽돌은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함을 유지한다. 또 통풍이 잘 되고 물을 잘 통과시킬 뿐만 아니라 황토가 방출하는 원적외선은 혈액순환 증진, 신진대사 활성화, 체질개선, 스트레스 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최연찬 전무는 “일반 벽돌은 하나에 300원 선이지만 공간세라믹에서 생산하는 일반 벽돌은 550~600원. 특수 벽돌은 1800~2200원 까지로 가격이 비싸다”고 말하고 있다.

공간세라믹은 사내에 환경기술벽돌연구소를 설립하고 친환경 생태 벽돌을 개발해 왔으며, 동종업계에서는 드물게 기술혁신(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인정받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색상과 질감을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능성 벽돌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 회사는 대기업 건설회사를 상대로 벽돌을 납품하고 있으며, 일본에도 지속적으로 수출한다고 한다.

연락처 : 02) 323-6000 www.ggceramic.com

